

기업 085-056206-04-111(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주정, 주일, 절기 헌금(이름/헌금종류 예 홍길동주정, 홍길동성탄)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김선희 김경상(김해숙) 김종선(박영숙) 김종진(한안나) 김춘희 맹지혜(임기빈) 방석태(차옥자)
백성원(안자영) 석형기(이희순) 성미영(박영식) 송미선 안금자 오영순 유예연 이나수(방원식) 이상의 이월숙
이창규(곽정준) 장영현 장성자 정삼재 채만기(장은주) 최순재 최정규(김미영) 무 명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신석) 김선희 김기택(배숙자) 김병율(이영숙) 김안나 김춘화 김해숙(김경숙) 맹지혜(임기빈) 박진재(송영숙)
배세영(이경순) 백성원(안지영) 베드로남전도 송미선 안금자 안지영(백성원) 오택현(김윤주) 이난수(방원식) 이미자
이윤복 장명원 채만기(장은주) 최순재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정대진(노영진) 이필재 김경업(손자아) 김병율(이명숙) 김정연B(강준식) 김정자 김춘희 김대이 민옥희(윤순환)
박권재(송영숙) 박순자(이동숙) 박지순(정경석) 방복순 방현욱(신영심) 서재희(김현구) 석형기(이희순B)
성미영(박옥심) 송다혜 송형기(김현숙) 염영복(천세력) 이미자 이월숙 이한철(박희영) 장동민(박혜진) 장은주(채만기)
전순봉 차옥자(방석대) 채영엽 최성현 무 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성 김아미린 김이안 김준구 민옥희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승현 박준홍 방복순 서로하
심숙옥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마자 이상미 이상희 이소은 이송예 이옥남 이진우 정서연
정양학 주성탁 최귀남 최봉순 최선미 하세련 홍은민 홍준민 무 명

♠ **원정현금**

주간 성경연구

35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사도행전 27장 13절 ~ 26절		
월요일	사도행전 27장 27절 ~ 44절	목요일	사도행전 28장 23절 ~ 31절
화요일	사도행전 28장 1절 ~ 10절	금요일	히브리서 1장 1절 ~ 14절
수요일	사도행전 28장 11절 ~ 22절	토요일	히브리서 2장 1절 ~ 9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시무장로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근제 최성현 윤영준 박종삼 최상길
은퇴장로	방현득 장명원 민영원 이일로 현세복 방조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정태진			
	전 도 사	이필례			
	교육전도사	김선희 김윤주			
찬양대	지 위 자	할 헬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시은 · 에 덴 : 최원지 엔 젤 :			
	반주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이상희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 리 스톱	김안나 이수경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수리 국: 김정숙 남: 안성렬 이성욱 국: 김다니엘 미: 최옥희	이 집 트: 김신숙 A X 국: 김해월 A X 국: 이분욱 모 잠 비 크: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역시 국: 박영성 정세미 국: 김홍기	태 국: 박경환 이순연

연락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즐거운교회, 가나교회.
연락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동포시할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3. 08. 20.

지혜를 말하다

옵기 32장 11~22절

설교: 이진우 목사

펠리구는 음과 친구들이 자신에 비해 나이가 많음으로 살아온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참 지혜를 말해 주길 기다렸으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서 크게 실망합니다. 더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기에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시작함에 앞서 먼저 연호함이나 살아온 경험이나 지식이 참된 지혜가 되지 못함을 말하고, 오직 지혜는 하나님으로 오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록 연소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지혜를 들어 보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요, 지혜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길을 힘어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알고, 참된 지혜를 깨달은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도 오늘 본문은 웅변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과연 참된 지혜를 소유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음의 친구들은 음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의 친구들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사람들이 말하는 인공증보의 대상으로 고난 중에 있는 음을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음은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친구들은 이러한 음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계속적으로 설득하려 했으나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관망하고 있던 엘리후는 참 지혜를 가진 자로 이 상황을 더 이상 간파할 수 없다며 말을 시작합니다. 그는 음과 그의 친구들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책임을 느낀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하는 자들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스려 전해야 합니다. 엘리후는 음의 친구들이 가진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성식으로는 음의 고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많은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을 마주하여 삽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가 이러한 삶의 근본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 또한 발견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당대해 받은바 은혜를 증거 하며 참된 지혜를 전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삶의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며 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2. 지혜의 말씀을 전하데 더 이상 지체함 없이 전해야 합니다.

엘리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지체함 없이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 마치 터지게 된 가족 부대 같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귀중한 압박감을 경험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향한 담담함과 연민이 그의 영혼을 강하게 몰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일찍이 고백한 바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사람들에게 분명 해를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에 상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한 참 진리요 참된 지혜인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예레미야처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싶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영적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를 전하며 증거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덧입어 많은 자들에게 오직 인생의 참된 지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 내일 가는 고고도 하루를 산다는 보장을 받은 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만난 많은 사람들을 내일 또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밤새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사람을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서로 경계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이 더욱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체 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사함
 들에게 선포하고 전해 줄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 사명을 주시며 또한 이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20절에서는 “또 의인이 그의 꿈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 같은 내
 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하였고, 에스겔 33장 8절에서도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
 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인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또 다니엘 12장 3절에서는 “죽어 있는 자는 공평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
 람을 줄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벌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에 은혜를 입은 신실한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
 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SINCE 1975

No. 49 - 35

2023. 08. 27.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마태복음 12장 13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 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p>담 임 목 사 Senior Pastor</p>	<p>이 진 우 Yee, Jin Woo</p>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에배

[1부] 오전 7시	사회: 배 경 철 장 로
[2부] 오전 10시	인도: 이 진 우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목 도	할렐루아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300(통406)장 내 맘이 낙심되며 (Praise)
대 표 기 도	[1부]김형국집사 [2부]박권재장로 [3부]배경철장로 (Prayer)
성 경 봉 독	율기 33장 1~13절[구약p.792] 인 도 자 (Scripture)
찬 양	[1,2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갈 이 [3부] 높이세 그 이름 예수[김기영] 할렐루아찬양대 (Anthem)
설 교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 진 우 목 사 (Sermon)
헌 금 봉 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갈 이 (Offering)
새 신 자 환 영	다 갈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270(통214)장 다 갈 이 변창는 주님의 사랑과 (Praise)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에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갈 이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Marching on Praise)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예배시 꼭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에배 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에배

오후 3시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하나님께 찬양을 다 갈 이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 양	다 갈 이
기 도	김 경 엽 집 사
찬 양	브 라 카 찬 양 단
광 고	인 도 자
성 경 봉 독	갈라디아서 4장 21~31절[신약p.307] 인 도 자
설 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 진 우 목 사
찬 양	다 갈 이
축 도	이 진 우 목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다 갈 이
성 경 봉 독	디도서 3장 2~8절 [신약p349] 인 도 자
설 교	이웃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 이 진 우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10:00 본당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치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0:00 로템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4:0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월~금 오전 5:00 본당		

교회소식

- ◎ 광고
- [총회주일헌금]

다음 주일(9/3)은 “총회주일” 로 지킵니다. 총회주일헌금은 세례교인 1인 1만원입니다.
※총회주일헌금은 세례교인이면, 1년에 한 번 헌금하는 것으로 총회발전과 교육, 국내전도, 선교, 복지, 은급, 출판 및 센터운영, 신학교 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목장 모임 및 전도특공대]

폭염과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목장 모임과 전도특공대 전도를 잠시 쉽니다. 목장 모임은 다음 주일(9/3)부터, 전도특공대는 9월 7일(목)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 [홍두표 선교사 일시 귀국]

본 교회 모잠비크 파송 선교사님이신 홍두표 선교사, 강순영 선교사님이 내일(28일) 건강검진 및 치료차 일시 귀국하십니다.
- [주일예배/새벽예배/수요기도회/금요기도회]

예배와 기도 회복을 위하여 주일예배와 새벽예배, 수요기도회 및 금요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시간 핸드폰 끄기 캠페인]

모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꼭 무음 혹은 잠시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8,9월 행사 안내]

8월 27일(주일)	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
9월 3일(주일)	총회주일
10일(주일)	
17일(주일)	루디아 여전도회 헌신예배
24일(주일)	2023년 하반기 사랑의 주일/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

이 번 주	다 음 주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중 식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윤예현 청년	김시우 어린이	김기택 집사, 배숙자 권사 /이근자 권사	소망1 고척2 고척3	에스더 여전도회
다음주	장성자 권사	장성자 권사	장성자 권사/이미자 집사	소망2 고척4 고척5 고척6	바울 남전도회
순서	1 부		2 부	3 부	찬 양 예 배
9월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기도	사회/인도 기 도
1주(03일)	임만순 장로	방원식 집사	최성현 장로	임만순 장로	최상걸 장로 최정규 집사
2주(10일)	박권제 장로	채만기 집사	윤영준 장로	박권제 장로	김병을 장로 오동호 집사
3주(17일)	최성현 장로	김경엽 집사	박종삼 장로	최성현 장로	임만순 장로 박은숙 집사
4주(24일)	윤영준 장로	최정규 집사	최상걸 장로	윤영준 장로	담 임 목 사 장윤주 집사
예 배 안 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